

테일러 스위프트, 신곡서 김 카다시안 저격



▲ 테일러 스위프트(왼쪽)와 김 카다시안. 사진=AP/연합뉴스

월드투어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곡이 모델 김 카다시안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과거 악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 USA투데이는 지난 20일 테일러 스위프트의 새 앨범 수록곡 '생큐 에이미(thank you ai Mee)' 가 김 카다시안을 겨냥한 노래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노래 제목에 대문자로 표기된 'K'와 'IM'을 붙이면 '김(KIM)'이 된다는게 이유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노래에서 '에이미'를 학교에서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못된 여학생으로 묘사했다. 가사에는 "네가 편지를 날리는 동안 난 편지를 만들고 있어" "피가 솟구칠 때 밤하늘을 향해 F--- 에이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스위프트는 신곡에서 카다시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팬들 역시 이 곡이 카다시안을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스위프트와 카다시안은 오랜 앙숙 관계로 유명하다. 지난 2016년 카다시안의 남편이었던 래퍼 카니에 웨스트(현재 활동명 예)가 노래 '페이머스(Famous)'에 스위프트를 모욕하는 가사를 담은 것. 이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반발하자 카니에 웨스트는 "동의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카니에 웨스트의 아내였던 카다시안은 녹취본을 공개해 스위프트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평판에 흠집을 냈다. 그러나 이후 김 카다시안이 공개한 녹취본이 편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라이즈 신곡 '임파서블' 미국 주요 매체 관심



▲ 보이그룹 '라이즈'. 사진=SM엔터테인먼트

미국 유명 매거진 틴보그(Teen Vogue)가 한국의 7인 보이그룹 '라이즈(RIIZE)'의 신곡 '임파서블(Impossible)'을 '금주 최고의 신곡' 중 하나로 소개했다.

지난 23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틴보그는 "라이즈가 하우스 장르에서 영감을 받아 그루비한 음악과 뮤직비디오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노래는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Rolling Stone)이 뽑은 '한 주간 꼭 들어야 하는 신곡' 목록에도 올랐다.

또 미국 매거진 유포리아(EUPHORIA)는 '임파서블'에 대해 "올여름 최고의 노래가 될 거다. 누군가와 함께 꿈을 위해 노력하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다. 뮤직비디오 속 라이즈의 뛰어난 퍼포먼스와 완벽한 갈군 무도 인상적"이라고 집중 조명했다.

아울러 영국의 저명한 음악 매체 NME는 '임파서블' 리뷰 기사를 통해 단순한 음악 소개를 넘어 라이즈가 내세운 독자적 장르 '이모셔널 팝'의 경계 확장에도 주목했다.

라이즈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첫 미니앨범 발매 시점에 앞서 프롤로그 싱글 '임파서블'을 공개했다. 한국의 음원 차트 및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 아이튠즈 톱 송 차트 전 세계 9개 지역 톱10에 올랐다.

셀린디옹 "어떤 것도 나를 멈추지 못해"

전신의 근육이 뻣뻣해지는 희소병을 앓는 가수 셀린 디옹(56)이 투병과 관련한 근황을 전하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의지를 내보였다.

디옹은 지난 22일 공개된 보그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적적으로 치료제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 셀린디옹. 사진=SNS 캡처

그는 2022년 12월 전 세계에 환자가 8000명에 불과한 '강직인간 증후군' (Stiff-Person Syndrome·SPS)이란 희소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디옹이 앓는 병인 SPS는 근육이 강직되고 통증이 수반되는 경련이 반복되는 신경 질환으로 증상이 악

화하면 운동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디옹은 "이제는 그것(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길 멈춰야만 한다"며 "처음에는 '왜 나야, 내 잘못인가'라고 묻곤 했으나 삶은 당신에게 어떤 답도 주지 않는다. 그저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나의 목표는 에펠탑을 다시 보는 것"이라 말했다.

디옹은 "나는 그 무엇도 나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며 가족과 지인 그리고 팬들의 사랑이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컴백 시기에 대해 "나는 매우 열심히 하고 있으며 결코 의지와 열정, 꿈과 결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



베네딕트 양 작가 |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